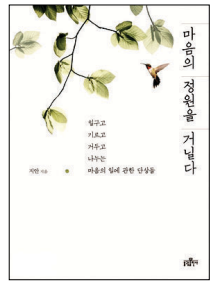


삶과 세상 바꾸는 첫 단계... '마음' 을 가꿔라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천원



조계종립 승가대학 원장으로 주로 스님들을 가르치며 '스님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지안 스님에게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산속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존 경기를 벌이는 현대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제삼자의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를 바라보는 대신 경기를 벌이는 양쪽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싶어진 것이다."

산중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해온 스님은 산속과 도시 풍경, 내면을 탐구하는 생활과 세속적 가치를 좇아가는 생활의 뚜렷한 대비 속에서, 마치 외계인 인류학자가 지구인을 관찰하듯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을 지켜보았다. 그 덕에 요즘 사람들을 가두는 생각의 감옥, 다시 말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건 바로 '행복하려면 내면을 외면하고 바깥을 좇아라'이다.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이 구호는 도리어 행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것이 초래한 사

람들의 황량해진 내면 풍경과 인간적 가치들의 몰락이 물질적 풍요를 간단하게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끝모를 결핍감으로 잠식된 마음과, 인간적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붕괴된 현실은 현대인이 겪는 고통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스님은 이 책에서 현대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내비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다가도 어느 대목에 가서는 단호한 사자후를 던진다. 왜 바깥 풍경에만 온통 주의를 쏟고 자기 내면 풍경을 황량하게 방치하냐고 말이다.

달콤한 위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전한다. 수동적으로 치유 받는데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마음의 일들에 대한 단상들을 1장 일구기, 2장 기르기, 3장 거두기, 4장 나누기'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정리해 소개한다. 순서에서 짐작되듯, 마음을 가꾸는 최종 목적은 나누는데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개인 간의 운명이지만,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정 도하기에 타인의 행복 없이는 내 행복도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마음이 차가운 냉각과 인간" "인



마음 가꾸기는 정원 가꾸기와 흡사 내면 변화없이 외면 못 바뀌

심이 메마른 사회" "바야흐로 도덕 불감증 시대의 도래, 순수한 인간애의 실종" "모방만 하며 살아가려는 이 시대의 현실" 등등, 스님은 이 책에서 현대 사회와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그 현실을 돌파할 처방을 내린다. 오직 사실만을 말하기를 통해 사람의 의식을 일깨우고 마음을 바꾸며, 바뀐 마음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다시 사람을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지안 스님이 선택한 독특한 음원 방식이다. 스님이 보기에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첫 단계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내면이 바뀌지 않고서는 외면을 바꾸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정원을 가꾸는 일과 흡사하다. 마음을 찬찬히 관찰하고 잘 일궈내어 좋은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뿌리를 내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뿌리며,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끔 잡초도 매주며 곁에서 느긋하게 지켜보고, 싹이 잘 자라 열매 맺으면 거둬서 이웃과 나누는 일까지 모두 닦았다. 손에 흙 묻히고 땀 흘리며 한 10년쯤 보내야 완성되는 정원의 아날로그적 감성 역시 마음 가꾸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주ыл 기자 kimj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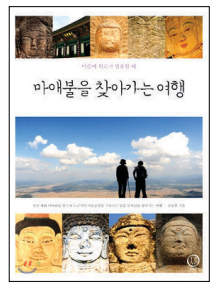
▲저자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장을 역임했다. 35년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조계종 총림 승가대학원장으로 승가 교육에 매진중이다. 반야불교학당과 반야경전교실을 개설해 많은 재가 불자를 위한 교학 교육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기신론 강의> <신심명 강의> <기초 경전해설> <보현행원론 강의>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는 짧다> 등과 역서로는 <대반니경> <대승기신론강해> 등이 있다.

천년 비바람 맞으신 부처님 모습은?

마애불을 찾아가는 여행

유동후 지음 | 토파즈 펴냄 | 1만8천원



원화가 손뚱으로 그렸다는 구례 사성암 마애불, 학이 부리로 쪼았다는 천안 성불사와 만일사 마애불, 베틀바위

의 슬픈 사연을 간직한 갈리마애불, 대통령으로 환생했던 봉화산마애불, 1년에 딱 하루만 친견할 수 있는 봉암사 마애불 등등. 우리나라에는 암벽에 새겨진 부처님들이 곳곳에 많다. 이 책은 지난 5년 간 저자가 둘러본 우리나라 마애불(磨崖佛)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자 답사기다. 불교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쉽게 파악하기 힘든 총 152기의 마애불을 직접 답사해 사진을 찍고 찾아가는 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소개한다. 마애불은 오래된 석불 가운데서도 조성 당시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며,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인 예술품

이다. 마애불이란 '암벽에 새긴 불상'을 말한다. 이는 주로 깎아지른 절벽 등에 부조(浮彫)나 선각(線刻)으로 조성됐다. 기원전 2~3세기에 만들어진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등이 시초로 알려졌으며, 4세기 중엽 중국 둔황의 텐포동(千佛洞)을 비롯하여 텐티산(天梯山)·마이자산(麥積山)·원강(雲崗)·룽먼(龍門) 등의 마애석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불상 조성양식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7세기 전후 충청도 지역이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이다.

이 책은 불상에 대한 학술연구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우리 불교문화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그래서 불상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과 설화도 덧붙였고, 초심자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내비게이션 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알려준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곁 가까이 숨어 있는 미지정 문화재까지, 불자들은 물론 국내 불교문화재에 관심 있는 이들이 즐겨 찾는 불상까지 모두 답사해 편견 없이 알려준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초심자를 위한 용어해설도 곁들였다. 광배와 법



마애불은 그 자체로 박진감 넘치는 예술품이다. 사진은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인 강화 보문사 마애불.

의 형태, 수인은 물론 햇갈리기 쉬운 비로자나·아미타여래·약사불 등 부처님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대개 절을 찾는 이들은 자신이 다니는 법당 안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 하지만 법당 밖 부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중국이나 태국 등이라도 여행하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불상의 규모에 압도당하고 만다. 정작 그런 불상들 못지않은 훌륭한 부처님들이 우리 곁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아웃도어의 일상화 시대, 물질만을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 걷기와 등산 등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이즈음 '오래된 석불 순례여행'을 제안하

는 마음으로 책을 엮었다고 한다. 절 밖의 돌부처들, 천년 세월 비바람을 맞았지만 정작 우리가 무관심했던 불상들, 가까운 들녘에, 혹은 깊은 산속에 숨어서 누군가의 마음공양을 기다리고 있을 부처님을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문화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간절할 염원을 안은 기도 객이든 상관없다. 부처님은 누구라도 따스한 염화미소로 맞아주시는 것이다. 경외감이 없더라도 절을 올려다 좋고, 무심한 세월이 상처 입은 돌을 가만히 어루만져도 좋다. 마애불 앞에 서면 천 년 전 바로 그 자리서 동안절 하나나 목숨을 의지한 채 그 슬픈 시간 단단한 화강암을 쪼아냈을 석공의 땀방울과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주ыл 기자

인터뷰 파아옥 명상센터 수행후 '열반...' 책 펴낸 정명 스님

열반증득은 마음반조로 탐욕과 성냄의 소멸여부에 따라 판단



열반 닦바나 니르바나

레디 사야도·마하시 사야도 지음 | 정명 스님 편역 푸른향기 펴냄 | 2만5천원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다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드렐셀 대학 경영사 과정까지 수료한 젊은 열리트.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돌연 2005년 태고종으로출가하고, 집을 꾸러 2006년 3월

미안마 파아옥 명상센터로 들어갔다. 주인공은 김천 성전사 주지 정명 스님이다. 스님은 13개월 동안의 수행을 통해 간화선보다는 위빠사나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따라서 정명 스님의 수행 체험은 남방불교 수행의 핵심에 닿아있고 그만큼 체험 기록은 생생하다. 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명상법, 즉 아나파나 사마의 궁극도 열반이다. 수행성취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정진하는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표인 것이다.

이번에 출간한 <열반 닦바나 니르바나>는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경전과 주석서, 그리고 아비담마 내용을 모두 뽑아 정리했다. 그리고 마하시 사야도와 레디 사야도의 열반론을 옮겨 묶어서 수행자가 참고토록 했다. 저자는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수행자들과 대화 하다보면 열반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음에 놀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인데 왜 가장 중요한 열반이란 개념이 아직까지도 일치되지 않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출간 취지를 서두에서 밝힌다.

책은 다소 어렵다. 저자가 대중성보다는 수행자들을 위해 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열반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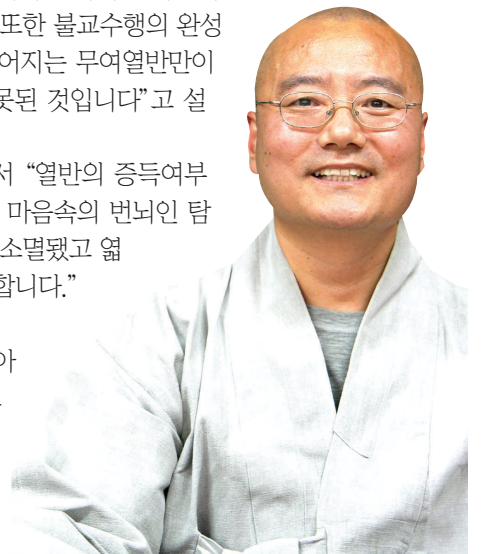
위해 5부 니까야(빠알리)에 나오는 열반과 관련 경전들을 모두 뽑아 한 곳으로 모은 후 해당 경전들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도 함께 보도록 구성됐다. 또한 수행 언어인 아비담마와 남방불교 수행 매뉴얼인 <청정도론>에 나오는 열반에 관한 설명도 함께 소개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전문서로서 돋보이는 것은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원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괴로움의 지멸, 다시 태어남이 없는 상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혹은 죽음에서 벗어남인 열반(닙바나)은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고 최후의 도착지가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 실재로서 조건지어진 것이 아니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가 소멸하고 죽음을 맞는 것이 진리인데, 이 열반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은 생사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면 환생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열반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다. 이어 저자는 "따라서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신 분이 닦바나라는 특별한 장소에 머물다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다시 온다는 주장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한 불교수행의 완성자인 아라한의 죽음이 이후에 얻어지는 무열반반만인 진정한 열반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열반의 증득여부는 스스로의 마음을 반조해 내 마음속의 번뇌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얼마나 소멸됐고 없애졌는가에 따라서 판단돼야 합니다."고 열반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 책에는 부록으로 파아옥 사야도의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을 첨부해 국내에서 출간된 수행법들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ыл 기자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계·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사,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사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 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결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익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家風) 지르는 할·괘(代表)를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공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공물할 수 있습니다.

"책" 공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국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서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b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전국리 판매중